

# 민주노총 “마침내 때가 왔다, 가자! 총파업”

홍미리 기자 | 승인 2015.04.18 18:59

## 한상균 위원장 “총파업 닷 올랐다,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4.24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 집결해 총파업을 선포하고 노동자들 투쟁으로 박근혜를 끝장내겠다고 경고했다.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가 4월 1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는 박근혜에 대한 노동자들의 솟구치는 분노를 표출하며 조합원들 결의를 모아 4월 24일 총파업 투쟁을 다시 한 번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전교조 등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결의한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막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공무원연금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4.24총파업 대열에 함께 선다”고 말하고 “공무원은 파업권도 없고 심지어 설립신고도 안 돼 있으며 노동3권 중 단 하나의 권리도 못 가졌지만 이길 때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 파업투쟁을 정부가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경고하는데 공무원노조는 아직 제대로 된 칼을 빼들지 않았으며 이제 더 큰 칼을 빼들고 정권과 맞짱을 뜰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사정위 야합이 결렬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4월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5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발표하겠다고 한다”고 전하고 “공공기관이 돈벌이 경영으로 전락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사라진다”고 규탄했다.

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을 반대하며 현재 1주일째 기재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민주노총 4.24총파업에 힘차게 함께 할 것”이라면서 “철도 가스 전력 공항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파업이 아닌 총력투쟁으로 동참하고, 오는 6월 박근혜에 한 방 먹이는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회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이제 부패 비리정권임이 드러났으니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도 국가를 운영할 자격도 없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금속노조는 4.24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15만 전 사업장은 4시간 이상 총파업에 돌입해 지역별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구조개악을 분쇄한다”고 말하고 “박근혜정권의 재벌 살리기 노동자 죽이기에 맞선 우리 선택은 4.24총파업으로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각종 산업현장에서 1년에 2500명이 죽는다고 하면 유럽에서는 무슨 그런 나라가 있나면서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건설현장에서 매년 10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니 정부가 책임지고 법을 개정해 이런 현실을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이명박을 거쳐 박근혜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건설산업연맹 모든 조합원이 파업으로 나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박근혜정권을 갈아치우고 이 땅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결의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1년 전 자본과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를 목도한 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결의했다”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노후는 우리가 스스로 투쟁해서 쟁취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우리가 연가투쟁을 결의하자 불법이라며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는 파업권도 포함되며, 썩어빠진 교원노조법상 연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어떤 겁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구속될 자는 박근혜”라면서 “노동자의 온전한 삶, 온전한 노후를 위해 투쟁하자”고 다짐했다.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

“세월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시행령을 폐기하라!”

“아 열받는다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 공무원노조 이총재 위원장(오른쪽부터),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건설산업연맹 이응대 위원장,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총파업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총파업을 선포했다. 위원장은 “그 누구도 석 달 만에 총파업이 가능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지만,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총파업을 만들어왔다”고 말하고 싸워야 하는 역사의 부름에 당차게 떨쳐 일어난 자랑찬 8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정말 든든하고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4월 24일 선제적 파업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내고 국민연금을 강화할 것이며, 노동약법 막아내고 노동3권을 강화할 것이며,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는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를 막아낼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노동자와 서민, 천만 장그래의 생존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또 “수장당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 모두를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박근혜정권에 분노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친 정권을 이기려면 더 미친 듯이 싸워야 하며 민주노총은 더 미쳐서 구속의 겁박을 더 큰 분노로 만들 것”이라면서 “총파업의 닳은 이미 올랐다”고 말하고 “1주일 뒤 24일 총파업 출정의 아침은 오늘보다 밝고 진격의 기세가 넘쳐날 것이며, 그 기세로 야만의 시대, 박근혜정권을 끝장내고 반드시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위원장 총파업 선포발언 전문 아래 상자 참조>

“노동자민중 총단결로 미친세상 갈아엎자!”

“4.24총파업 승리하고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 총파업 선포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손뼉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일제히 파업가를 제창하며 1주일 뒤 4.24총파업에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총파업 선포대회에 앞서 다가오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노동안전 쟁취대회’를 열어 산재사망과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산업현장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실태와 공공안전 실태를 고발하는 한편 민주노총 4.24총파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고 결의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상규명 실시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원청책임 강화하라!”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규제완화 중단하라!”

“안전하게 살고싶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안전 쟁취대회’와 총파업 선포대회에 이어 ‘세월호참사 1년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가족들과 함께 대통령령 즉각 폐기,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했다.



▲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에 앞서 다가오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노동안전 쟁취대회'를 열고 산재사망과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 선포발언 전문

'총파업선포식' 동지들, 마침내 때가 왔다.

2015년 4월 24일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0여 일 미친듯이 현장을 누볐다. 우리가 왜 총파업에 나서야 하는지 공감하고 결의하는 시간들이었다. 현장은 싸우자고 했다.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야만의 오늘에서 단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참혹해지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그 누구도 석 달 만에 총파업이 가능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총파업을 만들어왔다.

싸워야 하는 역사의 부름에 당차게 떨쳐 일어난 자랑스런 8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정말 든든하고 고맙고 자랑스럽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다. 패배와 굴종의 역사를 끝내는 총파업이다. 재벌을 배불리기 위해 공무원의 연금을 공격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깎겠다고, 그리고 민주노조까지 빼앗으려는 정권에 맞서 필사투쟁의 각오로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날 해외로 날랐다. 국가가 국민을, 우리의 아들 딸들을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았던 정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더니 참사 주기가 되는 날 참회와 사죄는 고사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가당찮은 으름장을 놓고 떠났다. 국민들은 천불이 난다. 진짜 손봐야 할 대상은 국민 행복시대를 팽개치고 재벌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총리, 비서실장, 부산 인천 시장, 경남도지사, 실제 국회의원 이완구처럼 최소한 비타 3000은 뺄뻔하게 마셔야 한다는 불의하고 부패한 정권의 민낯을 다 보여준 박근혜정권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노동자 서민의 이름을 수첩에서 지운 박근혜정권에 기대하지 않는다. 기업 비자금이란 검은 돈으로 대선을 치른 박근혜정권은 완벽하게 정당성을 잃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단호하게 선언한다. 박근혜정권은 이미 끝났다!!!! 동지들 맞는가?

사랑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민주노총은 벼랑으로 내몰린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부패한 정권은 국민을 살릴 수 없다.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지키지 못하는 권력은 권좌에 있을 자격이 없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권력의 말로는 처참할 것이다. 이 불의한 권력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모인 우리가 보여주자.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자.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총파업,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권을 끝장내는 총파업, 꿈 많았던 우리 아이들을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았던 학살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대 반격의 포문을 여는 4.24총파업, 이제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는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진짜 준비됐나?

민주노총은 4월 24일 선제적 파업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내고 국민연금을 강화할 것이다. 노동약법 막아내고 노동3권을 강화할 것이다.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는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를 막아낼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노동자와 서민, 천만 장그래의 생존을 지킬 것이다. 수장당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모두를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박근혜정권에 분노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을 모으자.

미친 정권을 이기려면 더 미친 듯이 싸워야 한다. 민주노총이 더 미치겠다. 구속의 겁박을 더 큰 분노로 만들 것이다. 총파업의 닦은 이미 올랐다. 1주일 뒤 24일 총파업 출정의 아침은 오늘보다 밝고 진격의 기세가 넘쳐날 것이다. 그 기세로 야만의 시대, 박근혜정권을 끝장내고 반드시 승리하자. 투쟁!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